



해월정사, 성철 종사 봉헌관 건립

성철 스님 봉헌관 조감도

성철 스님 체취 '가득'

성철 스님 열반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성철종사 봉헌관(奉訓館)이 부산 해월정사(海月正舍)에 건립된다.

11월 2일 부산 해월정사에서 기공식을 가진 성철종사 봉헌관은 '스님의 뜻을 받드는 공간'이란 뜻으로 성철 스님의 만상좌자(萬相坐子) 조계종 법구위원장인 천제 스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5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430여 평,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봉헌관에는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 3백여 점이 전시되는 유필전(遺筆殿)과 법당, 강당, 사무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유필전에 전시될 성철 스님의 친필

안정사 천제굴에서의 생활 등 성철 스님 생전의 감회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이 밖에도 법문 인용을 위해 영어로 적어 놓은 성경 구절, 종정 재추대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사퇴서 등도 눈에 띈다.

봉헌관이 건립되는 해월정사는 1978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휴식 차 머물렀던 도량으로 천제 스님이 직접 불사를 진행했다. 성철 스님 입적 후 법당과 요사채 불사를 진행했지만 스님이 주석했던 요사채와 서재는 그대로 보존했다.

"요란한 불사를 말라"는 성철 스님

법문원고·일기 등 친필 4백여점 전시 성경구절·종정 재추대 사퇴서 '눈길'

원고는 모두 300~400여점에 이른다. 성철 스님의 사서실장을 지내며 가까이에서 스님을 시봉했던 천제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친필 원고는 법문 원고, 서간문, 일기 등으로 성철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들은 백일 법문 자료, 금강경 해설, 철학 등 종교와 철학 전반에 대한 내용과 승려의 자세, 교리 등 한국 불교의 기준을 잡고, 종지를 바로 세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1965년 8월 22일 날짜가 인쇄된 달력 뒷면에 쓴 친필에는 1947년 봉암사 결사 당시 품었던 불교 중흥의 꿈, 한국 전쟁 과정에서의 좌절, 50년 대 비구 정화 사태에 대한 입장, 통영

의 뜻에 따라 불사를 진행하지 않던 해월정사는 봉헌관 기공을 시작으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원을 건립키로 하는 등 다양한 불사를 계획 중이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정법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봉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월정사가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이어가는 도량이 되도록 제자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월 정기법회 때마다 성철 스님의 친필 원고를 복사해 신도들에게 나눠 주고 뜻을 풀이해줬던 천제 스님은 봉헌관 건립이 마무리될 때 즈음 친필 원고집 출판을 검토 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민과 함께한 '개산대제'

은해사 '수림葬' 계획도 발표

10월 24일 영천 은해사. 일주문을 지나자 지역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 알타리 무, 사과, 호박 등이 불자들에게 한껏 풍성함을 뽐내고, 솔밭에 꾸며진 무대에서는 경북도립국악단의 전통우리음악 향연이 솔바람을 타고 울려 퍼진다.

10교구본사 은해사가 1195돌 개산대제를 맞아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 솔밭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법회에는 주지 법타 스님과 제주 약사사 회주 해인 스님, 류성업 영천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

했다.

법타 스님은 봉행사에서 "올해 개산대제는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북 도농 네트워크사업 참여의 일환으로 경내 농산물 장터 운영과 북한 불교 사진전, 돌그림, 수예 특별전, 도자기 공예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은해사를 지역의 정신적 요인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법타 스님은 또 "장묘시설에 대한 고심 끝에 수습한 유골을 경내 소나무뿌리에 묻는 가장 친환경적 장례문화인 수림장을 한국불교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은해사 1195돌 개산대법회가 2천여명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 열렸다.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 대응

포항시암련, 대책위 발족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 편향적 활동으로 지역 불교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암련(포항시암연회)은 10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포항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계종 죽림사 주지 종문, 법화종 무량사 주지 법은 스님 등 포항시암련 소속 스님들과 포항 거사법회, 포항 여성불자회, 포항불교 청년연합회 등 지역 신행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포항시암련은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에 대한 포항불교 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위원장에 법화종 법은 스님과 부위원장에 천태종 경천, 조계종 종문 스님을 위촉했다.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대책위는 29일 정 시장을 방문해 홀리 클럽 탈퇴와 종교 편향 활동에 대한 대 시민 공개 사과 등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지선 기자

금오불교대학 신축 기공식 신행단체들 활동 중심지 기대



구미 봉곡동 다봉산 자락에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재가자들을 위한 포교의 요람이 들어선다.

금오불교대학(어린이회관)이 10월 23일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암련 협회회장 정우, 김천 자비원 원장 선혜 스님, 김관용 구미 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불사 회향과 구미지역 불교 포교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기원했다.

금오불교대학(어린이회관)은 금오산 정상에 바라보는 구미시 봉곡동 500여 평의 대지에 52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5층 연건평 1138평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2층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당구·탁구장, PC방, 외국어 강좌실을 마련해 어린이 불교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3층과 4층에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 및 선·제조·요가·사찰 음식 강의실, 시민선방 등이 마련되며, 그동안 사무실 하나 없이 활동해온 구미의 많은 신행단체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접안식, 개문, 대웅전 현판식, 사시불공, 무비 스님 법문의 순으로 진행됐다.

봉행식에서는 조각가 유수관 씨가 조성한 삼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문수·보현보살이 봉안됐다. 무비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자체가 신심이며 불교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번뇌 속에 살지만 우리마음의 구족한 자성을 밝히기 위해 일심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라밀 무용단의 불교 의식무 바라춤, 살풀이 춤, 산사음악회와 22일부터 계속된 시화전 등 삼존불 봉안 기념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해운정사, 수계 및 참선지도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0월 28일 재가 오계 수계식 및 바른 참선 지도 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지혜 대중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를 증명으로, 진제 대중사(조계종 원로의원을 전제사로 진행한 이날 수계법회에는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수계 이후 진제 스님의 지도로 바른 참선법을 배우는 시간이 진행돼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제 스님은 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녀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수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나를 찾는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라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공부 길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며 회두가 무르익어 일념이 지속되고 홀연히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선지식의 지도 아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직지사, 천불 개의불사 성만



10월 28일 스님들이 개의불사를 마친 직지사 비로전 현경 천불 부처님께 헌화하고 있다.

김천 직지사는 비로전의 현경 천불 부처님 개의불사가 성만됨에 따라 10월 28일 원로회장 도원 스님과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천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점안법회는 점안 의식, 녹원 스님 법문, 시식으로 이어졌다.

점안법회 후 직지사는 11월 1~3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천개의 등과 향, 꽃, 과일, 차, 쌀 등 육법공양을 올리는 부처님 봉안 특별공양기도를 올렸다.

경주 옥돌로 근세에 조성된 비로전 현경 천불 부처님은 92년 개공불사가 완료됐다.

배지선 기자

송학사, 삼존불 점안대법회

양산 송학사(주지 용해)는 10월 24일 '무비 스님 초정 삼존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증명법사 여천 무비 스님, 법주 동우 명천 스님(향운암 주지)을 비롯,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신축 현상기본설계 공모

1. 사업내용

- 1) 사업현장: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1번지 외 18필지
- 2) 부지면적: ① 총 시설사업계획면적: 9,032평
② 시설사업면적: 4,082평
- 3) 토지현황: 관리지역(준농림지)
- 4) 시설용도: 불교전통문화교육원, 국제간화선(수행)체형센터, 각종 불교문화체험 및 교육시설.
- 5) 시설규모: 연면적 4,000평 내외
- 6) 소요예산: 총사업비 약 250억 내외

2. 설계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공모

- 1) 응모자격: 건축법시행령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교육연수시설 13,200㎡(4,000평) 이상의 설계 실적이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및 전통건축 설계실적이 있는 설계사업자
- 2) 응모기간: 2004년 10월 29일(공고일)부터 11월 30일까지
- 3) 선정방법 및 절차: 응모된 기본계획도서를 관계 전문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3. 신청접수 및 현장설명

- 1) 신청접수

- ① 접수서류: · 응모신청서 1부(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열람)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설계실적증명서 1부
- ② 기 간: 2004년 10월 29일 ~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 ③ 장 소: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 현장설명

- ① 일 시: 2004년 11월 5일 오후 2시
- ② 장 소: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마곡사 사업현장

3. 유의사항

- ① 신청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 참석업체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 ② 사업지역이 전통사찰과 인접하므로 전통사찰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계획을 필요로 한다.
- ③ 본 시설은 유·무형의 전통불교문화체험 조형공간으로써의 성격을 가져야 함.

4. 문의 및 연락처

- 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2) 기관명: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3) 전 화: (02) 2011-1982, fax (02) 732-9928

2004. 10. 2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